

이번 FOCUS는 굴 수출대상국의 변화와 주요 국가별·제품별 비중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의 굴 수출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굴 수출, 대상국 수는 늘었지만 수출량은 감소

- 우리나라 굴의 수출대상국 수는 2004년에 21개국에서 2008년에는 26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총수출량은 2004년에 1만 4,000여 톤에서 차츰 줄어 2008년에는 9,000톤 수준으로 38% 감소하였다.
- 수출대상국별 비중은 일본과 미국이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일부 국가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중화권으로의 수출량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또한 2006년까지는 대일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7년 이후로는 대미 수출량 비중이 대일 수출량 비중보다 커졌다. 이는 일본 내 생굴 수요가 감소하여 대일 수출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국의 연도별 수출 동향〉

(단위 :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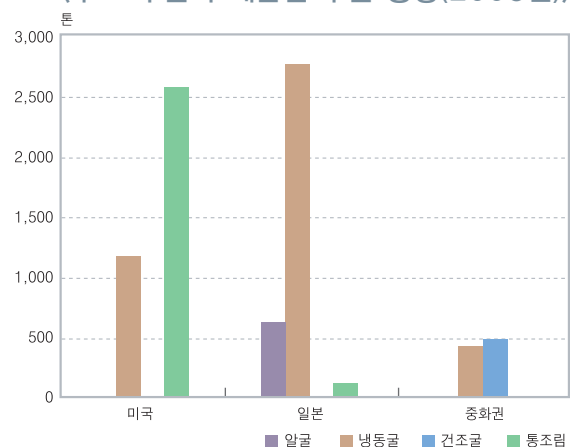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일본	7,744(52.9)	5,806(51.3)	4,816(45.5)	3,032(38.0)	3,570(39.5)
미국	4,948(33.8)	3,717(32.9)	4,044(38.2)	3,416(42.8)	3,819(42.2)
중화권	1,041(7.0)	975(8.6)	994(9.4)	867(10.9)	925(10.2)
기타	919(6.3)	810(7.2)	725(6.9)	663(8.3)	728(8.1)
총수출량	14,652(100.0)	11,308(100.0)	10,579(100.0)	7,978(100.0)	9,042(100.0)
수출국 수	21	22	22	24	26

주 : ()안의 수치는 수출 비중을 나타냄, 중화권은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중국, 홍콩을 의미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은 '통조림', 일본은 '냉동굴' 수출이 많아

- 수출대상국에 따라 수출되는 제품형태(알굴, 냉동굴, 건조굴, 통조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미 수출의 경우 통조림 형태가 많았던 반면 대일 수출은 냉동굴 형태가 많았다. 한편 중화권 중 홍콩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냉동굴의 수출 비중이 높았던 반면 홍콩으로는 건조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이러한 차이는 나라별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수출국 제품별 수출 동향(2008년)〉



자료 : 상동

굴 수산물관측

제154호 | 2009년 4월

2009년 4월 6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 라09578 ISSN 1739-5283 발행·편집인/ 강종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1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KBS미디어센터 14층 TEL. (02)2105-4920 FAX. (02)2105-49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주요 양식수산물의 생산, 가격, 수출입동향 등 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매월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관측정보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http://www.foc.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월 굴 생산량, 작년보다 소폭 증가

4월 생산량은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 가격은 높게 형성될 듯

- ▶ 3월 굴 생산량은 경남은 줄어든 반면 전남과 기타지역의 생산량이 늘면서 작년 동월에 비해 5% 증가한 4,094톤이었다. 굴의 양성상태는 점점 호전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작년보다 좋지 못했다.
- ▶ 산지가격은 가공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월 대비 3% 상승하였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어기 초부터 높게 형성된 가격 추세가 3월에도 지속되었다.
- ▶ 3월 굴 수출량은 지난달보다는 많았지만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5% 적은 수준이었다.
- ▶ 양식어가들의 채취량 증가 경향이 4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성상태와 잔여시설량을 감안하면 4월 생산량은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산지가격은 계절적인 수요 감소로 전월에 비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4월 표본어가 조사 기간은
4월 22일(수)~26일(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산동향 굴 생산량, 작년 3월보다 5% 많아

양식산 굴은 수하식(垂下式)과 투석식(投石式)으로 생산되나, 투석식은 생산량이 미미하고 시설량 파악이 곤란하여 관측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월 굴 생산량, 작년 동월보다 5% 많은 4,094톤

- 3월 굴 생산량은 4,094톤으로 지난달에 비해 12.2% 줄었으나 작년 3월에 비해서는 4.5% 많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작년 동월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생산이 저조했던 전남과 기타지역의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 지역별로는 경남은 작년 동월에 비해 감소한 반면 전남과 충남 등 기타지역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까지의 2009년산 굴 생산량은 2만 9,323톤으로 전년산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3월 굴 생산 동향〉

(단위 : 톤, %)

구 분	2008년산		2009년산				
	3월	연산 누계	2월	3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연산 누계
전 국	3,916	29,326	4,663	4,094	-12.2	4.5	29,323
경 남	3,662	26,192	3,721	3,538	-4.9	-3.4	24,519
전 남	254	2,995	867	503	-42.0	98.0	4,421
기 타	-	139	75	53	-29.3	-	383

주 : 알굴 기준으로 2009년산 3월은 잠정치

3월 말 잔여시설량, 작년 동월보다 적은 314만 연

- 3월 말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의 15.3%인 314만 연으로 작년보다 67만 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경남과 전남 모두 잔여시설량이 작년보다 적었으며, 특히 전남의 잔여시설률이 낮았다.
- 한편 전남 지역의 경우 고흥은 2월에 생산이 종료되었으며, 여수와 진도도 일부어가를 제외하고는 3월에 생산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의 남해도 3월에 생산이 거의 종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월 말 굴 잔여시설량 현황〉

(단위 : 만 연, %)

구 분	초기 시설량	3월 채취량	잔여 시설량	잔여 시설률
전 국	2,054	201	314	15.3(17.7)
경 남	1,626	160	285	17.5(20.3)
전 남	373	38	20	5.4(10.7)
기 타	55	3	9	16.4(0.0)

주 : 5m 수하연 기준이며, 기타지역은 생산이 가능한 시설만 포함된 것임
()는 전년 어기의 동 시점 잔여시설률임

굴 성장상태,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일부지역은 여전히 작년보다 저조

- 어기 초 좋지 못했던 양성상태는 최근 강수량 증가로 인해 점점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고성, 거제, 완도, 충남지역의 양성상태는 전월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작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灣)별로는 통영의 한산만과 지도·원문만의 양성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평·도산만은 내만어장의 성장상태가 다소 부진했으나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수의 가막·장수·여수만 역시 3월 들어 비만도가 많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고성·자란만, 거제만, 진해만 등에서는 영양염류 부족현상이 여전히 지속되었고, 특히 고성·자란만의 경우 오만등이, 진주담치 등 해적생물이 패각에 부착되는 현상으로 인해 양성상태가 다소 부진하였다.

※ 3월 중 폐사와 병해는 없었으나 누적 폐사량은 작년 보다 많은 상태임.

〈3월 굴 양성상태〉

	지 역		성 장	비 만 도	폐 사	병 해	비 고
경 남	통 영	한산만	△	△	○	○	해황이 양호하여 양성상태 회복
		인평·도산만	△	△	○	○	내만어장 성장상태 다소 호전
		지도·원문만	△	△	○	○	해황이 양호하여 양성상태 회복
	고 성	고성·자란만	×	×	○	○	오만등이, 진주담치 등 해적생물 부착
	거 제	거제만	△	△	○	○	양성상태 호전 중
		진해만	△	△	○	○	
	남 해	강진만	△	△	○	○	
전 남	여 수	가막·장수·여수만	○	△	○	○	성장상태 양호, 비만도는 호전
	고 흥	-	○	○	○	○	어기 종료
	완 도	-	△	△	○	○	양성상태 호전 중
	진 도	-	○	○	○	○	양성상태 양호
충 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등	△	△	○	○	양성상태 호전 중

주 : ○는 작년보다 양호, △, ▼(△는 호전되는 중 ▼는 악화되는 중)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 ×는 작년보다 부진을 나타냄. 단, 충남은 예년 수준을 기준으로 함

〈해황 및 기상예보〉

(기간 : 4월 1일~30일)

■ 4월의 수온전망(국립수산물과학원)

구 분	동해 중남부	남 해	서해 중남부
수온 분포	12~13℃	10~14℃	9~11℃
평년 대비	1℃ 내외 고온상	1℃ 내외 고온상	1℃ 내외 고온상

■ 4월의 기상전망(기상청)

구 분	날 씨	기 온	강 수 량
상 준	맑은날이 많겠음	평년(4~13℃)보다 높겠음	평년(17~58mm)과 비슷하겠음
중 준	맑은날이 많겠음	평년(6~14℃)보다 높겠음	평년(22~58mm)과 비슷하겠음
하 준	맑은날이 많겠음	평년(9~16℃)과 비슷하겠음	평년(23~68mm)보다 적겠음

가격동향 굴 산지, 도·소매가격, 작년 동월보다 크게 높아

산지가격, 작년 동월 대비 77% 높게 형성

- 3월 굴 산지가격은 5,078원으로 전월 대비 2.8% 상승하였다. 이는 어기 초부터 높게 형성된 가격이 김장철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이달 들어 가공용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지역별로는 고성의 가격이 5,18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 동월 대비 상승폭도 78.8%로 가장 컸다. 통영과 여수 역시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생굴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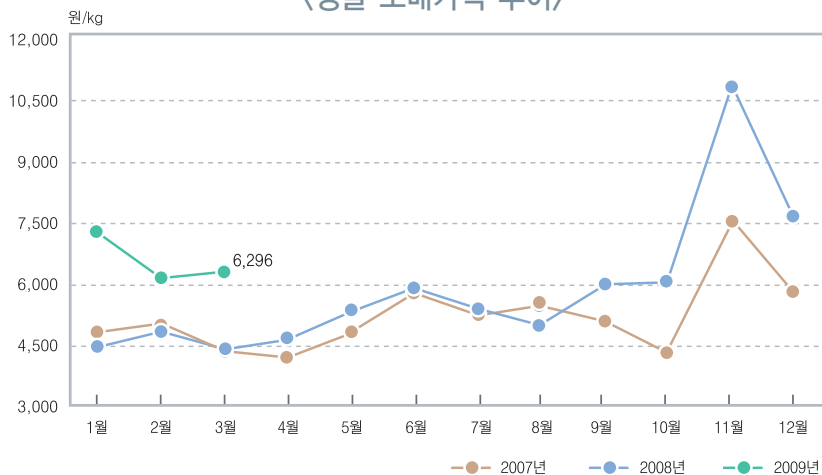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2월	3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평 균	2,876	4,941	5,078	2.8	76.6
통 영	2,881	4,949	5,075	2.6	76.2
고 성	2,902	5,060	5,188	2.5	78.8
여 수	2,546	4,039	4,415	9.3	73.4

자료 : 각 수협(2009년 3월은 잠정치)

도매가격, 작년 동월 대비 43% 높은 수준

- 노량진수산시장의 3월 굴 도매가격은 kg당 6,296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2.3% 상승하였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42.7%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굴 상품 도매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노량진수산시장의 3월 깐굴 거래량은 148톤으로 지난달에 비해 36.7% 감소하였다.

〈생굴 도매가격 추이〉



〈생굴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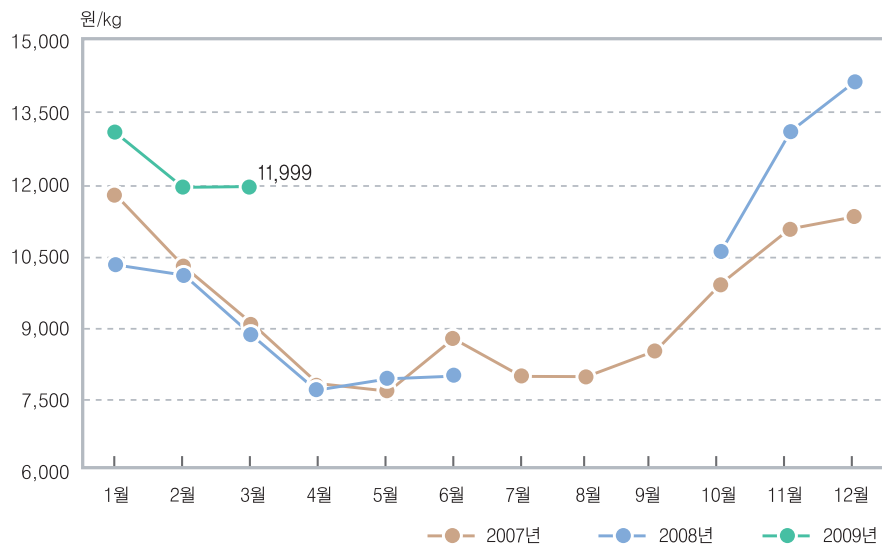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2월	3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노량진수산시장	4,411	6,154	6,296	2.3	42.7
농수산물유통공사(상품)	5,779	7,845	7,490	-4.5	29.6

주 : 노량진수산시장은 평균 경락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조사가격

소비자가격, 작년 동월 대비 37% 높게 형성

- 3월 생굴 소비자가격은 kg당 11,999원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37.1% 높게 형성되었다.
- 지역별 소비자가격을 보면 서울은 전월에 비해 9.0% 상승한 반면 부산과 광주는 각각 8.2%, 3.0% 하락하였다.

〈생굴 소비자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생굴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 원/kg, %)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2월	3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전 국		8,755	11,969	11,999	0.3	37.1
주요 도시	서울	8,949	10,891	11,871	9.0	32.7
	부산	7,290	11,955	10,969	-8.2	50.5
	광주	8,647	11,888	11,531	-3.0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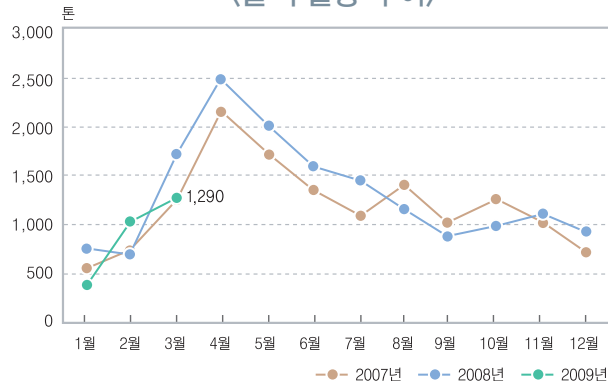
주 : 전국 소비자가격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청주, 전주의 조사가격 평균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동향

3월 수출량, 전월보다 늘었지만 증가폭은 예년보다 작아

- 3월 굴 수출량은 1,290톤으로 지난 달에 비해 23.0% 늘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작았다. 이는 지난달부터 수출이 재개되었던 건조굴의 수출실적이 없었고, 통조림의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 제품별로는 알굴과 냉동굴의 수출량은 지난달에 비해 증가했으나 통조림은 감소하였다. 특히 통조림의 경우 산지가격이 높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제품별 수출량은 알굴과 냉동굴이 각각 62톤, 839톤이었으며, 통조림은 389톤이었다.

〈굴 수출량 추이〉



주 : 알굴로 환산(마른굴은 5배, 통조림은 2.5배 수출 적용)하였고, 치패는 제외하였음(2009년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수출입통계」

〈굴 제품별 수출량〉

(단위 : 톤, %)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2월	3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알 굴	99	46	62	34.3	-37.7
냉동굴	987	480	839	74.9	-14.9
건조굴	134	91	-	-100.0	-100.0
통조림	498	432	389	-9.9	-21.8

자료 : 상동

해외동향

일본 굴 도매가격, 작년 동월 대비 23% 하락

- 일본 오사카중양도매시장(本場)의 3월 굴 도매가격은 kg당 541엔으로 전월에 비해 10.9% 하락하였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22.7% 낮게 형성되었다.
- 한편 한국산 굴은 지난달에 이어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는 자국산 굴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계절적 영향으로 일본 내 생굴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일본 오사카중양도매시장(本場)의 굴 도매가격〉

(단위 : 엔/kg, %)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2월	3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한국산	426	-	-	-	-100.0
일본산	700	607	541	-10.9	-22.7

주 : 2009년 3월은 중순까지 가격임

자료 : 일본 오사카중양도매시장(<http://www.shijou.city.osaka.jp/sikyo/sikyo.html>)

생산 및 가격전망

4월 생산량은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
산지가격은 높게 형성될 듯

4월 굴 생산량,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 보일 듯

- 표본어가를 대상으로 4월 굴 생산의향을 조사한 결과, 양식어가들이 4월에도 작년 동월에 비해 채취량을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통영, 거제 등 가공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굴의 양성상태가 작년보다 다소 좋지 못하고, 잔여시설량도 적기 때문에 4월 생산량은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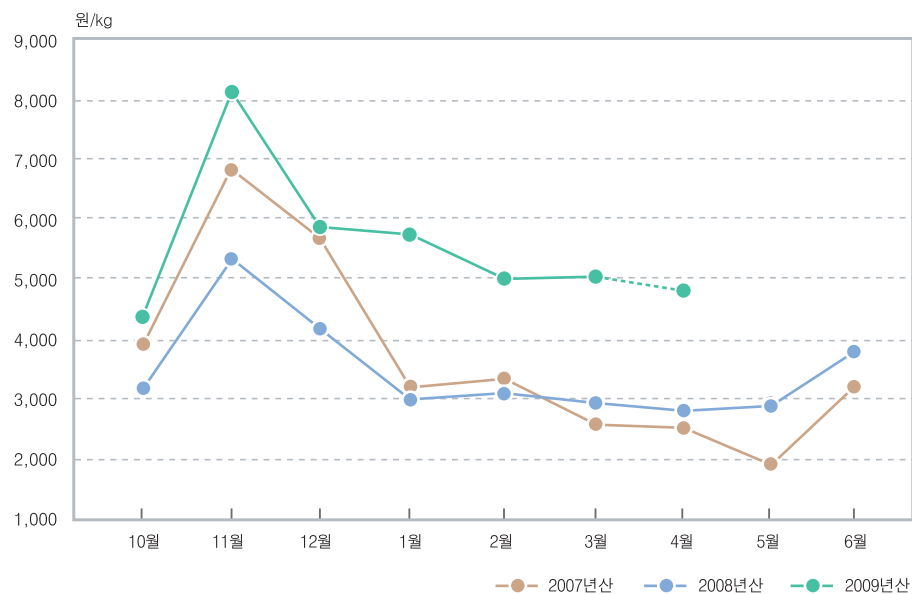
4월 굴 수출량, 작년과 비슷한 수준 보일 듯

- 시기적으로 4월 들어 가공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산지가격과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통조림의 생산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월 굴 수출량은 지난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4월 굴 산지가격, 전월 보다는 하락하지만 작년보다 높게 형성될 듯

- 4월 산지가격은 계절적인 수요 감소로 전월에 비해 하락하겠으나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굴 산지가격 전망〉



주 : 4월은 전망치이고, 산지가격은 굴수하식수협 위판가격 기준임
자료 : 굴수하식수협